

국제학회 및 심포지움 소개

GIM 2002의 한국유치에 부처

이 상 기

한·러 생명공학 공동심포지움 참관기

이 상 기

GIM 2002의 한국유치에 부쳐

이 상 기

총무간사, 유전공학연구소 응용미생물연구그룹장

GIM 2002의 서울 개최 결정!

국내 미생물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6월말 캐나다의 Montreal에서 개최되었던 GIM '94(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Genetics of Industrial Microorganisms)에서 2002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 9차 GIM 학술대회를 북경, 싱가포르 등 여타 경쟁도시를 제치고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GIM은 참석인원만 수천명에 달하는 IUMS(International Union of Microbiological Societies) Congress나 ECB(European Congress on Biotechnology)와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는 작다할 수 있으나 발표논문의 주제가 미생물 균주의 유전공학적 육종연구와 산업적 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발표논문의 전문성 및 연구결과의 실용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일급 국제학술대회이다.

한국에서의 GIM 학회개최가 실현된 것은 지난 1990년 프랑스의 Strasbourg에서 개최된 제 6차 GIM 학회에서 서울대 이계준박사가 GIM의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위원장인 Ralf Huetter 박사에서 한국유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는 이미 Israel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proposal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 1998년 개최되는 제 8차 대회는 Jerusalem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서울개회는 차후 고려해 보자는 답변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언질은 없는 상태여서 국내 미생물학계에서 GIM 학회의 유치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었다. 그후 금년 5월 Huetter 박사에게서 2002년 제 9차 GIM 학회의 한국개최 의사를 타진하는 서한이 이계준 박사에게 접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및 서울대 분자미생물연구센터에서 각각 GIM 2002의 유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기관 대표의 참석하에 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GIM의 공동유치를 공식화하고 가칭 "GIM 2002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유치작업에 돌입하였다.

유치추진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GIM 2002 유치 proposal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위성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도시로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풍부하여 GIM의 개최지로서 손색이 없음.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은 21세기를 향한 국책과제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생물산업의 규모 및 수준도 높아 GIM의 개최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

2. 기 간

2002년 8월 25일~30일과 200년 10월 6일~11일 중 택일

3. 장 소

한국무역센터 종합전시장

4. 조 직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및 분자미생물연구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기타 미생물 관련 학회 및 기관이 공동참여함.

5. 유치추진위원회

1차로 GIM 2002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

음과 같이 함.

- 민태익(한국미생물학회 회장)
- 정호준(한국산업미생물학회 회장)
- 하영철(분자미생물연구센터 소장)
- 이계준(GIM 2002 유치추진위원회 실무대표)
- 최언호(한국산업미생물학회 간사장)
- 이상기(한국미생물학회 총무간사)
- 노정혜(분자미생물연구센터 기획부장)

6. 발표주제

GIM 국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되 추후 설치될 학술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1997년까지 최종 확인함.

- Molecular Cloning and Plasmid Construction
- Gene expression and Expression Efficiency
- Screening for New Active Compounds From Microorganisms
- Development of Novel Test System and Strain Improvement
- Physiological Manipulation and Secretion Mechanism
- Genetic and Physiological Impacts on Reactor Performance
- Cloned Gene Stability and the Cloned Gene Product Stability
- Down Stream Processing
- Biology of *Streptomyces*, *Pseudomonas*, *Bacillus*, *yeast*, etc
- Recent Advances in Antibiotics and Enzyme Inhibitors
- Bioremediation and Biotransformation
- Bioinsecticides and Polysaccharides
- Mushroom Cultivation and Breeding
- Food Microbiology, Food Enzyme and Flavours
- 기타

7. 전시회

과학기자재 및 도시 전시회를 학술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하며 국내외 관련회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

8. 예산

등록비, 정부보조비, 기업찬조비 및 기자재전시회 참가비 등을 주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해외저명과학자 초청경비, 연회비, 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하되 총 예산액 및 등록비 산출은 2002년의 물가수준을 예측하여 추후 확정함.

9. 후원기관

- 과학기술처
- 교육부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 한국과학재단
- 한국관광공사
- 서울시
- 생물산업 관련 기업체 및 기기전시업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한 유치 proposal은 1994년 6월 26일 GIM 94 조직위원회가 제출되었고 6월 29일 오후 개최된 국제위원회에 정식상정되었다. 한국이외에 중국 및 싱가포르이 유치의사를 밝혔으나 공식 proposal 제출이 없었으므로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국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유치 적격여부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민태익 한국미생물학회 회장과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완벽하게 준비된 proposal 덕분에 위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으나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수준 및 총체적인 국가홍보 결여로 일부위원의 무지에 가까운 질문도 없지 않았다. 특히 예산확보 및 정부지원에 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proposal에 포함된 정부각처의 지원보증 서한이 몇몇 위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생명공학 수준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질문에는 위원중 한사람이며 금년초 유전공학연구소의 초청으로 처음 방한했던 미국 MIT 대학의 Arnold Demain 박사가 방한인상을 이야기하는 중 “생명공학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와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연구인력, 연구에 임하는 한국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연구자세가 매우 적극적(aggressive)이어서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2000년대에는 세계생명공학 연구를 한국인들이 주도하리라고 확신한다”는 요지의 지원발언을 하여 GIM 2

002의 한국 개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다. 한편 개최시기는 논란끝에 구미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대학이 방학중인 8월말 개최로 확정되었다.

이번의 GIM 2002의 한국개최 결정은 이의 유치를 국내 미생물학계가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준비해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큼 국제학회 개최에 대한 공감대 및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그동안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특히 국내의 미생물 관련 연구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GIM 2002의 유치는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GIM 2002의 개최가 국내 미생물학계로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행사인 만큼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제 학술대회의 성공여부는 발표된 논문의 질적, 양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대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었는가에 좌우될 것이므로 조직위원 및 행사주관요원 몇 사람의 능력과 노력만이 아닌 국내 미생물학계 전체의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할 것이다.

GIM 200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